



16면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현장 속으로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음 2월 8일)

제297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시청하는 여야 전북도당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9일 오후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 영상을 시청하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 왼쪽) 같은 날 같은 시각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9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 영상을 시청하며 박수를치고 있다.

'초박빙' 대선, 결과는 '안갯속'

(오후 11시 50분 현재)

국민의 선택 제20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尹 48.4%·李 47.8%··JTBC는李 48.4%·尹 47.7%

출구조사에 여야 중앙·전북도당 반응 엇갈려... 전북, 이재명 '압도'

20대 대통령 선거가 종료된 9일 저녁 7시30분 지상파 3사 및 JTBC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환호, 국민의힘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초박빙 상황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KBS·MBC·SBS 3사의 공동 출구조사에선 이재명 후보 47.8% 윤석열 후보 48.4%의 득표가 예측됐다. 윤석열 후보가 0.6%p 차이로 승리한다는 예측이다.

JTBC는 이재명 후보가 48.4% 윤석열 후보는 47.7%로 이 후보가 0.7%p 차로 윤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는 예측을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상파 방송 3사와 JTBC 모두 25%를 기록했다.

지상파 3사와 JTBC의 출구조사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내면서 초집전 국면으로 예상됐던 이번 대선 결과는 10일 새벽 늦게나 드러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전북 지역에서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이재명 후보 82.8% 윤석열 후보 14.4%로 발표됐다.

JTBC 출구조사(호남)에서는 이재명

후보 86.5% 윤석열 후보 11.7%로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10분쯤 개표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선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상황실 안은 '이재명'을 외치는 함성으로 가득했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환호하며 눈물을 보였고, 이나연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포옹과 악수를 나눴다.

국민의힘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선대본 주요 인사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한다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짧은 합성과 큰 박수가 나왔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이후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침묵이 유지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북 선대위 반응 역시 다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지상

파 3사·JTBC 출구조사 결과가 보도되자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예상과 달리 두 후보가 초경합 양상에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10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각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지상파 3사 및 JTBC의 출구조사는 오후 6시부터 이뤄진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사전투표 출구조사의 경우 공식선거운동 출구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방송사들은 사전투표에 대한 보장작업을 거쳐 발표했다.

방송 3사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7만3천29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다.

JTBC 출구조사는 전국 1만4464개 투표소 중 표본을 선정해 통계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의 신뢰 수준에 ±1.2%포인트다.

한편 전북지역은 오후 11시 50분 현재 개표결과, 이재명 후보가 85.8%로 윤석열 후보 보다 앞섰다. /유호상 기자

'초박빙' 20대 대선
전북 투표를 80.6%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77.1%를 기록했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 80.7%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전체 선거인 4,419만 7,692명 가운데 3,409만12,523명이 투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율은 19대 대선 투표율(77.2%)보다 0.1%p 낮았다.

지역별 투표율에서는 광주(81.5%) 전남(81.1%) 전북(80.6%) 세종(80.3%) 대구(78.7%) 울산(78.1%) 경북(78.0%) 서울(77.9%)이 전국 평균 투표율을 상회했다. 호남 3개 시도가 전국 투표율 상위 5개 지역에 포함됐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72.6%)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73.8%) 인천·충북 각(74.8%) 부산·강원 각(75.3%)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 투표율(80.6%)은 제19대 대선(79.0%)보다 1.6%p 높았다. 도내 유권자는 153만3,125명 중 123만5,322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장수군(88.8%) 진안군(88.5%) 순창군(83.4%), 임실군(82.9%), 무주군(82.0%), 남원시(81.7%), 전주시 덕진구(81.5%), 완주군(81.4%), 고창군(81.2%), 전주시 완산구(81.0%), 부안군(80.8%), 김제시(80.3%), 정읍시(80.2%), 익산시(79.1%) 군산시(78.8%) 등 순으로 기록됐다. /유호상 기자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군산 새만금산단에 들어선다

해수부 공모 선정 2025년까지 총사업비 380억원 투입

전북도와 군산시는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288억원을 확보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1일 수산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산가공종합단지 내 기반시설 등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을 공모했다.

당초 전북도와 군산시는 '원역별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새만금산단단지 2공구에 부지 28만6,000㎡(8만평)를 확보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 (관련기사 9면)

이번 성과는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한 산업단지 조성 구상 등 지역 맞춤형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전북도, 군산시, 전북연구원에서는 공모 예비계획서를 토대로 발표자료(PPT) 작성, 예산 절의응답 자료 준비와 숙지 및 리허설 등 대면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대면평가(발표및질의응답)에 직접 참석, 수산가공종합단지를 신재생에너지를 접목시킨 융복합 산업 단지로 만들겠다고 피력해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도 특성에 맞는 사업 전환과 예산 확보 및 공모에 선정되기까지는 송하

진 도지사, 신원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김일준 군산시장 그리고 이원택·신영대 국회의원, 전북연구원 나정호 박사 등이 지역발전의 위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다.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는 올해부터 4년간 국비 288억원 등 총사업비 380억원을 투입해 3만3,058㎡ 부지에 1만4,000㎡ 규모의 5개 시설을 구축한다. 스마트 수산가공 R&D센터, API형 임대가공동 등에 육상 조경, 태양광 전지 패널 등을 적용해 건립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 시대에 맞는 친환경 스마트화로 전북도 산업혁명을 완성하겠다"며 "수산식품 분야에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전북 수산식품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지역 수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동북아 수출입 거점 종합단지를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준 군산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유통의 기틀을 다지고, 이를 통해 수산식품단지 잔여부지 7만평에 김 관련 다양한 가공공장 등 수산식품 기업 유치로 군산시의 새로운 신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군산=남원봉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